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지원 TF 가동

도, 행정부지사 단장으로
5개 팀 등 편성 대응키로
항소심·집행정지 대응
국토부와 협업 강화키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지원 추진 TF팀'을 본격 가동한다. 최근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첫 TF 회의를 개최하고, 항소심과 집행정지 결정 대응 및 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새롭게 구성된 TF는 △총괄지원팀(기획조정실장) △공항지원팀(건설교통국장) △새만금지원팀(새만금해양수산국장) △환경분쟁대응팀(환경산림국장) △도정홍보팀(대변인) 등 5개 팀 9개 실과로 편성됐다. 각 팀은 전문 영역별로 역할을 분담해 최종 결정까지 운영된다.

총괄지원팀은 지휘부 보고와 대응관리 총괄, 국가예산 대응을 담당하고, 공항지원팀은 소송 대응 지원과 국토부 협력, 2심·집행정지 소송 대응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지원 추진 TF팀'을 본격 가동한 가운데, 노홍석 행정부지사가 첫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항소심과 집행정지 결정 대응 및 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집중한다. 새만금지원팀은 새만금사업 영향 검토와 새만금개발청과의 협력을, 환경분쟁대응팀은 야생조류 대체 서식지 조성 방안 등을 마련한다. 도정홍보팀은 공항 건설 필요성 홍보와 브리핑을 통한 적극적인 소통을 책임진다.

특히 법원이 지정한 조류 충돌 위험성, 경제적 부족, 환경 파괴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반박 자료를 정교하게 준비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하는 대외 홍보 활동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운영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주요 쟁점 발생 시, 공항지원팀 주관의 협력회의를 수시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도민 불

안 해소에 나선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의 미래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인프라"라며 "TF를 중심으로 법적 대응, 과학적 검증, 전방위적인 소통을 빈틈없이 추진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의 정당성을 명확히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9월 20일, 주인공은 '청년'

오늘부터 이틀간 '전북자치도 X 익산시 청년축제'

지역 탐방·문화 체험·취업 특강 등 프로그램 다채

청년들의 열정과 지역의 활력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축제가 익산에서 열린다.

익산시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중앙체육공원 일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2025 전북특별자치도 X 익산시 청년축제'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의 목소리를 담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의 젊음이 펼쳐지는 전북 청년축제'라는 의미를 담아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어우러지는 축제로 꾸며진다.

축제 첫날인 19일은 주요 프로그램으로 '솔로 이리'와 '동네산책 로컬 워크(Local Walk)', '슈퍼피크닉' 등이 진행된다.

'솔로 이리'는 2025 전북청년생생아이디어 사업에 선정돼 주목을 받은 2030 솔로 청년대상 매칭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에게 새로운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

'동네산책 로컬 워크(Local Walk)'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익산 구도심을 탐방하며 지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슈퍼피크닉'은 19~20일 진행되며 라이브 드로잉, DJ·커피 버스킹 등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이 마련돼 자유롭

고 활기찬 축제 분위기를 만든다. 20일에는 실전 취업 전략을 배울 수 있는 특강 '청년잡(JOB)담', 특별 PD와 함께하는 '청춘공감 로컬 라이브 토크콘서트'가 마련된다. 토크콘서트는 '다르게 사는 삶'을 주제로, 청년들의 공감과 성찰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청년밋업 커넥트 토크'에서는 전북 지역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새로운 연결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교류의 장이 펼쳐진다.

이 밖에도 양일간 축제 현장에는 △청년정책 홍보부스 △이벤트 부스 △먹거리 부스 등도 운영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도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신중년일자리센터 취업박람회, 중장년기출발센터 창업페스티벌, 사회적경제 한마당 등도 진행돼 세대 간 상생과 지역사회의 활력을 도모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축제는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문화와 산업 속에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익산에서 활짝 꽃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호 기자

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22일부터 신청 가능"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의 민생경제회복 정책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재산세·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국민 90%다. 최종 선정은 2025년 6월 가구원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도내에는 162만여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신청은 1차와 동일하게 성인은 개별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가족을 대표해 진행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개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등 9개 카드사와 인터넷 전문은

내달 31일까지... 1인당 10만원, 사용 기한은 11월 말까지

행을 통해 가능하다. 각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앱으로도 모바일·카드형 신청이 가능하다. 시스템 점검시간을 제외하고 24시간 접수되며, 신청 다음 날 자동 충전 후 문자로 안내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해당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내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분증만 지참하면 별도 서류 작성 없이 현장에서 즉시 처리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 다음날 충전되고, 선불카드는 현장에서 바로 수령 가능하다.

군 장병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에도 '관외신청'을 통해 복부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로 제한되며,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사행업종은 제외된다. 다만, 농촌 지역 여건을 고려해 동네 하나로마트 105개소와 로컬푸드직매장 20개소를 새로 포함했다. 이달 22일부터는 지역 생협 8개소도 공식적 성격을 감안해 사용처에 추가될 예정이다.

신청 첫 주(22일~28일)에는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1차 신청과 같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실시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가구 구성 변화나 건강보험료 변동

이 있는 경우 신청 기간 내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확인과 신청 방법 등 상세 정보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www.ips.go.kr)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신청 대상자들이 빠른 시일 내 소비쿠폰을 신청·사용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길 바란다"며 "시군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소비쿠폰 지급과 사용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도, 집중호우 피해지역 재난관리기금 긴급 지원

전주·군산 등 9개 시군 대상 10억원 긴급 교부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6~7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진안·임실·고창·부안 등 9개 시군에 대해 재난관리기금 10억원을 긴급 교부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0년 만의 극한 폭우로 군산(296mm), 익산 함라(260mm) 등 일부 지역에 기록적인 강수량이 집중되면서 주택 845동, 상가 2,671동이 침수되고, 농작물 2,110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피해 규모와 복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난관리기금을 배분했으며, 해당 예산은 잔해·토사처리 등 투입비용 등으로 활용된다. 특히 추가 강우에 대비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 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긴급복구와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대한민국의
미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